



통계청(2006) 발표에 의하면 2005년 한국의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의 1.2%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총 결혼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90년에는 전체의 0.2%에 불과했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15년 동안 41배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1.0%에서 3.2%로 증가한 것에 비해 놀랄만한 상승치를 보이고 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6%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나타난다. 특이할만한 점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시아와 동유럽 국가의 여성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그리고 당시까지는 국제결혼이란 주로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졌었다(이혜경, 2005). 흔히 주둔지의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전쟁신부(war brides)가 대부분이었으며, 국제결혼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한국에서 근대적 국제결혼의 효시는 1900년대 초 일본, 하와이, 중남미 등 식민지 플랜테이션의 이주노동자들과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부계혈통사회인 한국에서 외국으로 건너가 일하는 한국 남자가 현지의 외국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곧 한국과의 연락을 끊고 현지사회에 동화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김민정, 2003). 그러나 현대에 와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윤형숙(2005b)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1990년 “한국의 장가 못 간 농촌

총각과 연변치녀 짝지우기”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주변화 된 남성들과 선진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연변치녀들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이기는 하지만 같은 민족끼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1990년 88건이던 한국남성과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은 92년 한중 수교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한국남성과 조선족여성의 결혼이 많아지면서 다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조선족 여성 중에 코리아 드림을 이루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와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기결혼, 위장결혼을 하였는데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도망을 가버려’ 큰 빚을 내 가면서까지 결혼비용을 마련하고 가족이 생긴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농촌남성들을 “또 한번 울린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윤형숙, 2004).

이와 같은 피해사태가 불거지면서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이 주춤하고, 그 대안으로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어려운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이 대두되었다. 초기에는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이 특히 장려되었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 사회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 대한 학대문제가 제기되고, 필리핀 정부의 자국민력 유출에 대한 제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윤형숙, 2004), 베트남 여성이 새롭게 각광받았다. 현재 베트남 여성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0%정도를 차지한다.

이처럼 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가진 한국 남성들이 국내에서 결혼상대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글들을 보면 아시아여성들을 ‘나이차이가 많아도 쉽게 결혼이 성사된다, 순종적이다, 초/재

혼을 문제 삼지 않는다, 외모가 뛰어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는 자신이 가진 사회·경제적 지위로 얻기 힘든 수준의 결혼 대상자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것이다. 아시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와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것이 크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이주여성들이 이슈화되면서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이들의 한국생활을 다룬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국제결혼의 현황(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이진숙, 2005)과 실태(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한국염, 2004)를 소개하고,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사례(글랜, 2003; 김상임, 2004; 마리안나, 2003; 이인경, 2005; 윤정숙, 임유경, 2004)와 이주여성 그리고 결혼이주 가정의 갈등 요인(윤형숙, 2004; 윤형숙, 2005a; 윤형숙, 2005b; 이혜경, 2005; 한건수, 2006)을 소개하는 것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결혼 사례를 통해 이주와 결혼, 노동이 결합되거나 치환되는 양상과 남편과의 관계, 친족관계망 관리를 분석하여 이주여성의 행위동기와 선택전략을 설명한 연구(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 2006),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간의 국제결혼가정의 적응과 갈등에 관한 연구(김민정, 2003) 등이 있다. 왕한석(2006)은 이주여성의 언어적응문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외국인 결혼이주자들의 생활실태와 결혼만족도, 가정폭력문제를 파악하고 적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일부 석사논문들

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여성들의 생활실태를 보고하거나, 갈등요인을 나열하여 소개하고,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데 초점을 두었고,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적응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밝히고 범주화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이 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상담을 하고 있거나 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여성들을 주로 면접했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 문제와 어려움보다는 극단적인 경험을 했거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강조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주로 소개되어 온 문제가 있다(한건수, 2006). 이는 이주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 중에서 폭력과 인권유린에 관련된 사항이 두드러지다보니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을 갈등과 폭력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김민정 등(2006)에 의하면 이러한 인권적 접근은 법안 및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며 피해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책적 제언은 분명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보다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처한 삶의 현실과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여성을 '국제결혼의 덫'에 걸린 희생자로 이미지화하고 고착시키는 문제 또한 지적되었다(윤형숙,

2005a). 이러한 이미지는 자칫 이주여성들을 우리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단지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대부분 스스로 혼인을 선택해서 왔으며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대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여성들의 적응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갈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대처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주여성들이 단순한 약자가 아닌 가정과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김정희(1987)는 대처를 스트레스를 다루어 나가는 노력이라고 보고 그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대처방식을 구분하였다. 대처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가 포함되며, 대처노력이 내부로 투여되는 소극적 대처에는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가 포함된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환경 관련문제를 직면하고 스트레스의 근원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사회적 지지추구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일으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정서완화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야기되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이며, 소망적 대처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과 사건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상상하는 대처방식이다. 대처양식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다

양한 대처양식 분류 가운데서도 단순 명쾌하기 때문에 질적연구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데 사용하기 매우 적합하며, 이주여성들의 행동양식을 설명하기에도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처양식을 적극적-소극적으로 나누어봄으로써 대처양식이 단순히 성격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봄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 특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처양식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누어 이주여성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언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화차이에서 기인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은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는데, 특히 한국사회의 국제 결혼의 경우, 중개업소나 종교단체가 개입되면서 결혼과정이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결혼 자체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다 온 배우자를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본인과 문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기 어렵고, 특히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로 이주해 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차이를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이는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건수(2006)는 이주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지만 정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을 극복하며 갈등과 적응

양식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고, 이러한 사실은 국제결혼 가족과 부부의 문화학습 또는 문화적 갈등과 적응에 관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관련되어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앞서 알아본 적응관련요인들과 대처방안이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과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는 문화적응이론(Berry, 1990)과 사회정체감이론(Tajfel & Turner, 1986)을 적용하여 한국생활로 인해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정체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문화접촉 상황에서의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응(acclimation)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초기에 문화적응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하였다(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9; 정진경, 양계민, 2004에서 재인용). 문화적응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erry, 1990).

Berry는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두 가지 차원이란 첫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

(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가 된다. Berry의 모델은 사람들의 문화적응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사회 정체감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처방식을 설명해 준다.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적 태도가 위협으로 느껴진 경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Tajfel & Turner, 1986).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을 떠나려고 하는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다. 즉,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다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새로운 차원에서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집단에 할당된 특성을 다시 평가하여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창조(social creativity)이다. 이것은 다시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① 내집단의 열등한 특성을 재해석하여 더 이상 열등하게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② 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가치 있는 특성을 지닌 다른 집단 보다 우월하면서도 새로운 집단의 특성을 창조한다. 즉 비교의 차원을 바꾸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비교차원의 중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집단의 지위가 변할 수 있다. ③ 내집단과 비교되는 외집단을 변경하여 새로운 특

성을 추구한다. 열등한 집단과 비교하고 상위 집단과의 비교를 회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외집단과 직접적인 경쟁을 통하여 긍정적인 특성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쟁 (social competition)이다(Hogg & Abrams, 1990).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상황이 합법적이면 개인적으로 성취를 이루려는 사회적 이동을 시도하며, 비합법적이거나 불안정하며 집합적으로 도전하는 사회적인 경쟁을 시도할 것이다(Ellemers, Speras, & Van Knippenberg, 1993). 이주여성들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경제력차이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정과 사회 내에서 안정과 불안정이 섞인 특수한 위치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드러낼 것인지는 이들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현실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대처방안과 문화적응과 관련된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이주여성들에게 제시된 고정관념적 이미지가 과연 합당한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들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의 적응관련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범주화함으로써 문화적응과 관련된 실질적인 생활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와 문화갈등을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문화적응 및 갈등과 관련하여 이주여성들이 어떠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체성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 방 법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경험을 통해 적응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한국어 어휘나 독해능력이 부족한 대상 집단의 특성 상,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는 적절하지 않아서 심층면접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일대일로 면접 조사하는 심층면접에서는 면접원이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질문 등을 하고 라포를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끌어낼 수 있어서 언어능력의 부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관련 변인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려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도 심층면접 자료의 질적 분석이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여성 10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1과 표 2는 결혼형태별과 출신국가별로 대상자들을 분석한 것이다. 결혼 경로는 중매업소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애결혼, 주변인 소개, 통일교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는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필리핀, 몽골, 태국 출신이 각각 한명씩 포함되었다. 표 3에는 면접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 연령분포는 21세에서 39세까지로 10명 모두 가정주부였다. 남편과의

표 1. 결혼 경로 별 인원

결혼경로	결혼중매업소	주변인 소개	통일교	연애결혼	합계
	4	2	1	3	10

표 2. 출신국가 별 인원

출신국가별	러시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합계
	1	3	3	1	1	1	10

표 3. 면접 대상자 인적 사항

사례	본인연령	남편 연령	입국년도	결혼년도	동거가족	비고
A	34세	40세	2003년	2003년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남편, 자녀	이주노동자로 입국 본인재혼
B	29세	39세	1998년	1998년	남편, 자녀	
C	39세	39세	1996년	2002년	남편, 자녀	이주노동자로 입국
D	22세	40세	2003년	2003년	남편, 자녀	
E	37세	47세	2000년	2000년	남편, 자녀	
F	34세	36세	1998년	1999년	남편, 자녀	
G	26세	40세	2005년	2005년	시어머니, 남편	임신중
H	21세	36세	2005년	2005년	시부모, 시누이, 아주버니, 남편	이혼준비중
I	27세	45세	2001년	2001년	남편, 자녀	남편재혼
J	36세	45세	2003년	2004년	남편, 자녀	이주노동자로 입국 남편재혼

나이차는 동갑에서 최대 18살이었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0.5세였고 남편의 평균 나이는 40.7세로 남편의 나이가 평균 10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은 이주 여성 본인과 남편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많았으나 시부모와 시댁 식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세 명은 이주노동자로 입국하였다가 한국에서 남편을 만난 경우

였다. 참여자중 8명은 한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한명은 임신 중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자녀가 없었다. 참여자 중 한명은 가정 생활 불화로 쉼터에 입소하였으며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개인적 편차가 심했다. 일부는 통역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상당한 한국어 실력을 보였으나 두 명은

통역을 거쳐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도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어려워했다.

## 면 접

면접은 2006년 9월과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접시간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편리한 시간을 선정하였고 연구자 1인이 면담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주여성을 충북이주여성 인권센터를 통해 소개받아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면접 장소는 충북이주여성 인권센터 회의실이 사용되었으며 한 참여자만 희망에 따라 참여자의 집에서 면접하였다. 면접은 참여자의 가족 및 이웃과의 대인관계, 가정생활,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생각, 본인의 경제활동과 가정경제, 문화갈등과 적응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질문지에 기초하여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면접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접에 참여한 연구자가 전사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 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자의 언어, 신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해 있는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현상학적 탐구영역은 경험이며, 의식경험의 분석을 통해 더 근원적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이는

이주여성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과정은 먼저 원자료를 충분히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원자료에서 '범주'를 생성하였다. 이 범주화된 내용들은 연구자 3인의 검토를 거쳐 일차적인 구조를 만들고 각각의 범주의 하위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생성된 구조와 도출된 개념들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최종적인 구조를 이끌어내었다.

## 결 과

범주화 결과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 문화적응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크게 상황요인과 대처전략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들은 다시 하위범주로 나누어졌으며,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로 하위범주를 더 상세히 개념화 하였다.

### 문화적응 및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요인

이주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구성하는 주요 범주는 언어와 문화의 학습,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원, 자녀양육, 한국사회의 이주여성 수용도라는 네 가지로 나타났다. 각 범주는 다시 몇 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는데, 언어와 문화의 학습은 문화차이와 문화갈등, 언어로 범주화되었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원은 남편, 가족, 이웃과의 관계와 적응지원센터, 이주여성친구가 하위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자녀양육



표 4. 문화적응 및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요인

범주	하위범주	개념
언어와 문화의 학습	문화차이와 문화갈등	· 생활방식 차이 · 사고방식 차이 ·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장·단점
	언어	· 고립과 스트레스 · 정보부족으로 인한 언어와 문화의 학습 어려움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원	가족의 지원	· 남편과의 관계 · 시가 및 친정과의 관계
	주변의 지원	· 이웃과의 관계 · 적응지원센터 · 이주여성친구
자녀양육	양육 책임에 대한 부담	
	아이로 인한 행복과 기대	
	교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	· 부모의 교육 참여와 사교육에 대한 부담 · 언어와 학업성취에 대한 우려
	따돌림과 차별	· 학교에서의 따돌림 · 가족 내의 미묘한 차별
한국사회의 이주여성 수용도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한국의 이주여성관련법 실태	

은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과 행복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 따돌림과 차별이 하위범주들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이주여성수용도와 관련하여 이주여성관련 법의 문제와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주요범주로 나타났다(표 4).

### 언어와 문화의 학습

#### 1. 문화차이와 문화갈등

생활방식의 차이 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생활이 모국의 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음식이 달라서 힘든 것은 물론이고, 온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이 차갑다거나, 식탁과 침대를 놓으면 걸어 다닐 자리도 없을 만큼 방이 좁다고 느끼기도 한다.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밥을 해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였다. 한 참여자의 경우 남편이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 결혼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한 여성은 남편의 집이 아파트라는 사실에 당황했었다고 한다. 그의 모국에서는 돈이 아주 없는 사람들만 아파트에 살았고 친정집에도 땅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보다도 못한 가난뱅이가 아닐까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방식의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문화적응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몽골 출신의 한 참여자는 한 달 동안 친정을 방문해보니 바람도 세계 불고 목욕도 밖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을 지내기도 힘들었다’며 오히려 한국식 생활방식에 더 익숙해졌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사는 한, 한국식 생활방식에 상당 부분 맞추어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감을 드러내기도 보다는 익숙해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여자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생활방식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한국의 방식이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는 ‘이것이 한국의 문화이고 달리 어쩔 수가 없으니 한국에서 살아야하는 내가 맞춰가자’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처음에는 집이 좁고 온돌이라 이상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냥 건강이 생각나서(건강을 생각해보니) 또 바닥이 차면 허리도 안 아프겠쥬 하하하. 그렇게 많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청소하기도 쉽네. 그냥 여기만 닦으면 되네. 어느 쪽이 나쁜 쪽이 있지만 좋은 쪽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례 A)

사고방식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만남에서 문화갈등은 피할 수 없다. 국제결혼가정은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서도 다양한 문화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문화갈등을 겪게 된다. 참여자들 중 절반이상은 특히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며느리의 업무과중과 남성위주, 장남위주인

문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사나 명절과 관련된 집안일이 온전히 여자들의 몫이라는 점 등이 특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하였다. 중국, 베트남, 몽골 등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의 경우, 모국이 모권이 강한 국가였던 반면 한국은 부권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남자가 제 남편 말고 딴 사람, 언니들 다 자기들 다 자기 왕만 생각해(은)니들이 말하기를 남편들이 다 자기를 왕처럼 생각한대요. 근데 부부 같이 사는 건 제가 힘들어도 있잖아요본인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힘들어도 있는데. 내가 힘 들으면 자기 도와줘야죠 자기 힘들면 내가 도와주는데 왜 내가 힘들면 자기 안 도와줘남자 자기 왕이다 내가 그냥 회사 갔다 오면 앉아하고 밥만 탁주고 마누라 세탁기 빨래 돌리고 자기 할만큼 해야죠 집에 오면 세탁기 열고 양말 벗고 그거 힘들어요 힘들지 않잖아요 도와줘야죠 ... 그죠? 자기만 왕 아니잖아요 (사례 D)

- 처음에 한국 들어와서 남자들이 ... 좀 여기가 그렇쥬 어디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은 한국여자들 맨날 집안일하고 한국남자들 앉아있는 거 그거 이해가 안 됐었어요(사례 F)

갈등을 크게 유발할 정도로 심하진 않더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소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남편이나 시가족들은 말이 없거나, 아이에게 지나치게 과잉 보호적이라거나, 남편이 애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주여성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이외에도 한국의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사를 하지 않아 가족끼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주변사람들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나 충청도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가 거부감이 들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 여성은 ‘왜 평등한 부부끼리데 나이가 많다고 존댓말을 해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갈등을 빚는 것은 대개 이주 초기이고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남편에게 불만 사항을 말하고 조금씩 수정해 가기도 한다. 특히 사회정체감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한국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살아도 다문화로 이루어진 가정 내에서는 남편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정체감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차별적 상황에 대응하여 제도의 변혁을 시도하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한국남자들 보니까 말을 좀 많이 하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무슨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안 좋은 일 있거나 집에서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얘기를 말로 하면 다 풀어질 수 있는데 왜 안하나괜찮아, 괜찮아. 한국남자들 다 그래. (사례 A)

- 옛날에 제가 한국에 왔었는데 공부도 없잖아요 한국말 모르니까 엄마 식사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 나가는데 ‘다녀오세요, 다녀오셨어요’ 그거 안 해요 모르니까. 엄마가

나가나나가거나 말거나. 나이 많으니까 며느리 왔는데 자기 어디가 마음대로 할라(며느리가 마음대로 하고 인사도 안하니까)갈등이 많았죠. (사례 D)

- 근데 항상 어디가나? 어디가요? 처음에 그런 소리 좀 듣기 이상했어요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아내가 어디가나? 어디가세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좀 그런 거 오해하는 거 있긴 있었는데(사례 A)

- 원래 ○○○ 사람들은 남편 나이 많이라도 그냥 부부면 부부예요 똑같아요 자기야 부르면 나도 자기야 불러요 나 이름 부르면 당신도 나 이름 불러요 똑같이 해요 니가 나이가 적는데 나한테 잘해줘야 돼말조심하라고 근데 왜 해야 돼? 근데 나이 많은데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렇게 말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힘들죠? 자기 밥 먹어. 서로 재밌잖아요 그죠? 너무 빠빠하면 싫어요 (사례 D)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장·단점 이주여성들은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장점을 여러 가지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한 편, 한국사회의 단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예절이 밝고, 친절하고, 상냥하며 특히 한국사회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고 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사생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버스 옆자리에 십분만 같이 앉아 있어도 집이 어디인지까지 다 알 수 있고, 이웃끼리 먹을 것도 나누어 먹을 정도로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한국사회는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기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람은 가정적이며, 한국 엄마들은 자녀에 대한 희생정신이 높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 여기 탁 오니까 필경은 깨끗하고 사람들이 예절이 밝고 내가 좋은 싫든 이 얼굴에 내색은 없잖아요 모두 그렇죠?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요 다 오면 그러던데 우리 올케도 작년엔 놀러왔는데 서비스는 여기가 죽인다 이러더라고요 (사례 J)

- 내가 뭔가 물어보면 말도 잘 못하잖아요 손짓발짓 하는 거(췌). 나는 요기요기 가야 돼. 어떻게 가야되나요?) 그 사람들이 안 답답하게 아 외국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차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데려다 주고 여기 앉으세요 그래 또 말을 잘 못하니까 운전수한테 말을 막 하면서대신 말해주면서). 기사님 이사람 여기 알려 주세요이거는 제일 좋은 점이라 생각하고(사례 A)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뽑는’ 이중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주여성들은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 권위적 태도, 성적 희롱,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편견,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 등으로 인해 한국생활 초기에 갈등을 빚고 상처를 입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람 특유의 싸우는듯한 큰소리에 놀라고,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거나 성질내거나 하는 것에 놀라기도 한다. 한 참여자는 이주 초기 만난 한국 사람들이 다 큰소리로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은 무섭구나”라고 생각했으며 “화가 나면 쉽게 성질내고 소리 지르는 통에 너무 무서워서 가까

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성향에 이주여성들은 쉽게 위축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못사는 나라에서 와서 여기 산다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 같애. 왜냐하면 자기 한국은 잘 살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못사는 나라서 우리나라서 산다 그런 거 좀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것 뺀에 좀 마음이 아파요(사례 F)

- 한국 사람은 왜 무서웠냐면 한국사람 목소리 커요 목소리가 커. 그리고 착한사람도 많아 나쁜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 오니까 저는 일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 술 먹으면 목소리 커져 목소리 조금(작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I)

## 2. 언어

고립과 스트레스 언어적 문제는 모든 이주여성들이 한결같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요인이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을 당시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들을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때문에 바깥활동 없이 2년 동안을 집에만 칩거한 사람도 있었다. 이 여성의 경우 생활 전반을 남편이나 시가죽에게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눈 먼 사람’과도 같은 존재로 느끼며 무능력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이라고 해서 언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조선족인 한 참여자는 비록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투리가 심

하고, 억양과 악센트가 높고, 영어가 많이 들 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었다"며, 언어문제에서 힘든 점이 있었음을 말하 였다. 따라서 모든 이주여성들이 언어로 인한 고립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 제일 힘든 건 말, 언어. 언어 때문에 그리 고 내가 느낀 건 말 모르는 사람이 딱 눈 없 는 사람 같애 어디 부딪쳐도 어디가도 대화 가 필요하잖아 제가 삼 개월 있음 다음에 간 다고 (모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 들어서 말도 모르죠 어디 길도 알아야 되는 데 길 잃어버리면 누구도 말해서 알아봐야 되 는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2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보니까 스트레스 땀에 머리가 (빠지더라구). (사례 F)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언어와 문화의 학습 어 려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입국초기 체계적 인 교육 없이 독학을 하거나 남편의 도움을 받아 언어를 조금씩 깨우쳤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처음 접해본 언어를 독학하기도 어렵 고 직장일하는 남편이 규칙적으로 언어를 가르쳐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언어소통이 원 활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 혹은 함께 거주하는 시가족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이때 이 주여성에게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식 문화도 생소하다. 따라서 생활전반에 걸쳐 주위의 도 움이 필요하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로 주변 이 웃이나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 아 어려움이 증첩된다.

이주여성에게 교육과 문화, 인적 네트워크 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각 지자체마다 마 련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교육기관 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주여성 본인은 물론 남편이나 가족 역시 지원 기관이 있는지 어떤 기관에서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정부 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관에 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어떻게 교육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충북이주여성 인 권센터의 회원들로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언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기관을 알게 된 경우는 모두 친구와 주변인을 통해서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아닌 다른 이주여성들의 경우도 대개 주변 이웃이나 본 국 출신의 친구 소개를 통해서 기관을 찾아오 는 것으로 보이며 신문기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한다. 교 육기관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짧게는 몇 개월 에서 길게는 몇 년씩도 걸리는데 관련 단체를 찾지 못한 기간 동안 이주여성들은 답답함과 외로움을 심하게 느낀다.

- 몰랐어요 저도 (교육기관을) 많이 찾았어 요 남편 같이 전화해봤어요 한국어 공부 하 고 싶어요 없어요(사례 I)

- 이 센터 나오는 것도 친구 통해서 아는 거. 그런데 진짜로 외국여성들이 들어오자마 자 그런 거는 바로 가르쳐주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지 않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요거는 안 해줘서 좀 그런 거예요 여 기 여성들이 결혼 하긴 하는데 전부(교육기 관) 없어서. 그런. 어디서 배워야 되냐? 집에서 배워야 되냐 집에서 혼자 배우면 사실은 재미없잖아요 남자들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 에만 들어오니깐 어 하루(동안) 뭐 해야 되

나? 그냥 집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날리치고 이거만 진짜로 많이 충고 하던지  
아니면 우리 알게끔 만들었으면(사례 A)

###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원

#### 1. 가족의 지원

남편과의 관계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이주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사적 집단으로 편입되며 초기에 문화접촉을 하는 대상은 대개 남편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에 연고가 없고 단지 남편에만 의지해서 한국행을 결정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남편은 가장 가깝게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학습의 디딤돌이자 낯선 한국생활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였다. 남편이 가정 내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또는 친정을 방문하거나 친정에 경제적 원조를 하고자 할 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타국생활에서 유일한 의지 상대이기도 하였다. 한 참여자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남편이며,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잘 대해주기만을 바란다고 하였다. 남편의 지원과 남편과의 관계는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누구한테나 얘기 안하고 그냥 상의할게 있으면 신랑하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돼? 필경 우리 신랑이 한국분이니까 제가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는 없으면 전화통화로 물어보고 신랑이니까. 제일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신랑 밖에 없잖아. 저기 전화요금도 신랑 꺼

백분의 팔십이야 나가는 거(사례 J)

- (한국생활에 모르는 것)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내가 모르면은 신랑 쉬는 날 일요일 날 한번 시내 나와서 구경하고 모르면은 나 어디 갈라구 했는데 버스 어떻게 타요? 물어보면 신랑 얘기해줘요 몇 번차 타고 어디서 내리면 되겠다 얘기해줘요 얘기해주는데 또 모르면은 신랑한테 많이 물어보고서 도움 많이 얻었어요(사례 B)

한 참여자는 입국 초기에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시가족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의심하였지만 “내 신랑이 최고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산다”고 하였다. 입국 초기 언어소통으로 인해 오해와 불편함이 쌓이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면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참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여러 면에서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한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문화에 별다른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아내가 모국의 요리를 한다거나 상이한 문화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참여자들 중 한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중매결혼과 연애결혼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같이 사는데 당연히(갈등과 다툼이) 있었죠 저도 걱정하고 자기도 걱정하고 나한테 어떻게 잘해 주냐 나 무슨 생각 해냐 또 가

꿈이 제가 친구 전화 왔잖아요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니까 뭐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오해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생각하기에) 한국에 결혼했을 때 그래도 남편이 제일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정도 아니잖아 잘해주지 않잖아요? 남편밖에 몰라요 (사례 D)

- 제가 여태까지 남편 잘못 만났으면 진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남편이 착하고 저도 위해주고 애기아빠도 제가 믿으니까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는 거예요(사례 E)

그러나 일부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이주여성이 박대와 구타를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으며 남편과 불화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과정에서 남성이 일방적으로 상대여성을 ‘선택’하고 여성은 그 선택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경제력이 더 열악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위장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결혼중매업체나 종교단체를 통한 경우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이 없이 몇 번의 만남 후에 바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일부 업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참여자 중 두 명은 남편에게 질환이 있음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 명은 남편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렸고 결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이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닥친 위협에 어떤 식으로든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경험 외에도 이들이 이주여성들의 모임을 통해 전해들은 몇 가지 사례로 미루어볼 때 이주여성에 대한 폭행이 극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에 의한 폭력 문제를 겪을 경우 사실상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 어떤 여자는 중국서 왔는데 한 달 되구서 말, 한국말 잘 못하기 때문에 신랑 술 마시면 여자 때리는 거예요 술 마시면 여자 때리구서 여자 어디가면은 사람 못 믿어서 자꾸 어디 찾고 다니고 어디도 못 가게 해요(사례 B)

- 남편이 착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완전 아니었어 완전 달라요 내 생각에도 (사례 H)

한 두 사례를 제외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가사일과 자녀교육에만 신경써주기를 바라며 경제활동을 꺼렸고, 그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기반은 미약한 편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재 모두 가정주부였으며, 한 명만이 결혼 후에 전일제 직업을 가졌었던 경험이 있었고 다른 참여자들은 결혼 후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만 해 보았거나 경제활동을 했던 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거나 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고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을 갖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원

했고,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인 남편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직장을 갖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들이 아내의 경제활동을 달가워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아내가 힘들까봐’였다.

- 남편 말 여자는 집에 있으라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하니깐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외)렇게 말했어요 (사례 D)

남편들은 아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은 꺼려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아내에게 맡기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자의 남편 중 6명은 월급통장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기면서 용돈을 타서 쓰고 있었다. 나머지 4명 중 3명은 남편 본인이 월급통장을 관리하며 아내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이주여성 자신이 아직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 살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면 경제권을 자신에게 맡기기로 약속했다고 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다 본인의 경제활동까지 차단되면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음은 물론 여성이 필요한 개인적인 용품을 사는 것도 어렵게 된다. 한 참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시가 및 친정과의 관계 이주여성의 가족관계는 크게 시가족과 친정가족과의 관계로 나뉜다. 특히 시가족들은 친정가족과 교류하

기 힘든 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을 대신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며 가족 간의 교류가 각별한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접촉해야하는 상대이다. 따라서 시가족과의 관계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참여자들 중 두세 명은 자녀출산과 양육, 한국 문화 전수, 언어교육 등 한국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시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옆에 앉혀두고 신문을 읽혀가며 한국어어를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발음을 교정 해주기도 하였으며, 이주여성 본인이 재혼이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시가로 들어간 한 참여자는 시부모로부터 결혼과정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가 시부모를 더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함께 거주하는 시부모와 사이가 원만할 경우 육아와 가사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육아를 위해 시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했지만 ‘편안히 살고 싶은’ 시부모에 의해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시가족과의 사이가 원만할 경우 여성들의 생활은 더 편안하고 즐거워진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은 물론 동서와 함께 시장을 보거나,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거나, 가정살림을 나눠하는 등 시가족과의 깊은 유대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 (시어머니한테) 음식도 배우고 제가 말할 때 발음이 안 맞으면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제가 갔는데 엄마 아버지 어딿어요?(하고 물었어) 근데 시어머니가 어딿어요? 아니고 어디 계세요? 그렇게 말하라고(가르쳐 주셨어) 한국말 90% 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줬어 제가 말 발음이 안 맞으면 그



렇게 안 맞아. 다시 말해봐, 다시. 계속 다시. 맞을 때까지 말해요 (사례 D)

그러나 일부는 시가족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타인과 달리 가족에 의한 상처는 깊게 남는다. 한 참여자는 출산 후 병원에 와보지도 않은 것은 물론 가까이 사는 조카에게 양말 한 켤레 사주지 않는 시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섭섭한 감정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갈등은 주로 이주 초기 의사소통 단절과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한 참여자의 시가족들은 남편의 폭력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자기들도 폭력을 쓰기도 하였다. 인격적 무시와 박대, 임신과 집안일의 강요를 일삼기도 하였는데, 상처가 깊은 참여자는 시가족과 단절되는 양상을 보였다.

- 제가 왔을 때 시어머니, 일곱시 일어나 여덟시 일어나 아침 해야 되는데 몰라서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아홉시까지 잤어요 시어머니 방 와서 똑똑 일어나 밥 먹어. 일어나 밥 먹어 무서워요 베트남이가 원래 아홉시 자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맨날 12시 그렇게 자잖아요 아침 일곱시 어떻게 일어나요 힘들어요 (사례 D)

- 내가 어디가면은 애들 고모 한 두세 번 찾으러 다니구서 중국서 왔으니까 도망갔나 싶어서 사람 엄청 많이 못 믿었어요 많이 못 믿어서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말, 대화 안 되고 말 안 통하니까 엄청 속상하니까 (사례 B)

- 한국에 왔을 때 집에서 남자 많이 있는데

일 안 시키고 나 시키고 가서 농사하라고 농사 좀 짓고 나 학교 가면 일 안하고 나 기다려요 나 왔을 때 (농사지으러)가라고 (사례 H)

시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면 왕래를 끊거나 분가를 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고 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문화차이나 언어문제로 인한 오해는 해소되기도 하지만, 편견으로 인한 갈등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한 참여자는 한국식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부모와 오해가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언어능력이 향상되면서 과거의 오해를 풀고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인격적 무시나 육체적 폭행으로 인한 갈등은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남기도 한다.

- 제가 (시부모한테) 잘못했는데. 근데 옛날에 나이 어리니까 제가 잘못했겠지만 잘 몰랐죠 생각이 안 났죠 근데 지금이 나이도 많이 아니지만 그 정도 알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해야죠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말 잘 몰랐고 또 내가 잘못된 거 아닌데 내가 왜 미안한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이 한국에서 조금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삼년 됐는데(이젠 알죠). (사례 D)

친정가족들이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지원하기에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이나 문화차이, 시부모와의 갈등문제 등을 겪게 되면 대화가 되는 친정가족에게 전화하여 처지를 호소하고 위로나 자녀양육 또는 시부모관계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아직 어린 여성들의 경우 친정가족들에 대한 의지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 두 명의 참여자들은 해마다 친정을 방문하기도 하였지만, 대개 친정가족과는 전화나 화상통신, 메일 등을 이용한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향수병을 더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인이나 조선족 출신 참여자의 경우 친정가족들이 노동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와 있기도 하였는데, 이럴 경우 특별히 친정가족들에게 어떤 위안을 얻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훨씬 덜 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 친정엄마 전화했어도(힘들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는데 우리 엄마 말했는데 머느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침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 챙겨줘야지 왜 늦게까지 자냐(라고 말했어요) (사례 D)

## 2. 주변의 지원:

이웃과의 관계 두 세 명의 참여자는 이웃 및 주변 한국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잦은 왕래를 갖고 있었지만, 한국인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웃이나 주변인과 왕래가 잦은 경우 여러 생활정보를 얻기 쉽고, 한국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가모임을 통해 적적함을 달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생활을 더 즐겁게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 주변 한국인과 왕래가 거의 없는 경우는 언어문제로 주변 한국인들과 교류하기 어렵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과의 교류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 이주여성들이 접촉하는 사람은 남편과 시가족 그리고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이주여성으로 한정된다.

- 내가 모르면 언니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은 언니 얘기 해줘요 반찬은 내가, 언니 반찬 맛이 없어요 언니 반찬 어떻게 해요? 요리 같은 거 내가 잘 못하니까 좀 알려줘 봐요 얘기하니까 언니는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동네 언니들 잘 지내면은 너무 좋아요한국 들어와서 많이 어려워 혼자 잘 모르니까 어려워 할 때도 많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언니도 많이 알고 너무 좋아요시간도 빨리 가고(사례 B)

적응지원센터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단체들에서는 언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생활상담, 부부교육, 산모서비스, 컴퓨터제공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종종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주여성들은 이런 단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제공받고 이주여성들 간의 공동체 모임을 결성하기도 한다. 이 단체들은 이주여성들의 법률적인 문제해결을 돕기도 하는데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한 참여자는 남편과 시가족들의 구타로 인해 결혼 1년 만에 집을 나왔고 관련단체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해 한국이 좋을 수가 없지만 자신을 도와준 기관의 선생님들에게는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비단 생활이 어려운 참여자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적응지원센터의 지원에는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체계적으로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주여성들을 만남으로써 이전에 고립되었었던 생활에서 벗

어날 수 있었던 것에 크게 만족하였다. 이외에도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몇몇 참여자는 지원센터의 알선으로 통역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과 관련되는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런 활동에 대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 (인권센터에서 소개해주는 통역 때문에) 나가서 바람 쐬니까 좋죠 나갈 때 애기도 데리고 나가고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애기도 들어주고 되게 재밌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사례 D)

- (센터)선생님이 적극 추천해 주더라고요 거기 다녀보라고 거기 다녀보니까 사실적으로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폭력아동폭력에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법률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한국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책해야 되겠다 아주 좋은 공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례 J)

**이주여성친구** 이주여성 지원단체는 이주여성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 여성들은 지금까지 남편과 시가족, 그리고 이웃으로 인간관계가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이주여성들과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말이 통하는’ 같은 국가 출신인 여성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자유롭게 모국어로 대화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함께 모여 모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쇼핑을 즐기기도 한다. 특히 이런 모임은 이제껏 고립되어 있던 이주여성의 삶에 활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정보력을 더 넓힐 뿐

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의논하거나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아이를 맡기기도 하는 등 여성들의 생활을 여러모로 지원하게 된다. 참여자 중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설혹 오해하거나 다투게 되더라도 “같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대화로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고, 함께 밥도 먹고,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아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한 참여자는 센터에 와서 모국출신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자주 어울리고 있었고 면담에도 그 친구와 함께 오는 등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모국출신의 친구를 갖는 것은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 참여자는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어였고, 그 다음은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참여자들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언어였다고 말했으나 그 이면에는 언어적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한 고립의 고통이 숨어있었다. 따라서 모국의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러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이주자로서의 어려움을 한결 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녀양육

### 1.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

이주여성들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초혼이며 홀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남편은 일로 바빠서 저녁에 자녀와 놀아주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할 뿐 양육에 깊숙이 개입하

기 어렵고, 이웃들은 의사소통 문제로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홀로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멀리 있는 친정가족들을 대신해서 시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경우가 많은데, 시가족이 없거나 시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이러한 도움마저도 받기 어렵다. 한국 내에서 따로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없을 경우 혼자 육아 책을 보거나 친정 가족에게 국제전화를 걸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며, 자녀가 어린이집에 보낼 연령이 되기 전까지 전적으로 자녀에 매어 있어야 한다. 두 명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상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다른 두 명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나이가 막내동생뻘인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양육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몇몇 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손꼽았다.

- 힘들었지. 애기 낳아. 신랑 누나 24일 봐줬어. 그런데 집에 다 오면 하잖아. 신랑 일 나가 혼자 애기 봤어. 혼자 애기 키우지. 어려웠지. (사례 C)

- 한달반 동안 애를 안고서 병원 다녔다니까. 수술 자리 아물지 않아갖고 약도 이렇게 마음대로 먹지 못하잖아. 그래서 애기 하나 또 가질까 하면 우리 신랑이 겁나서 못 가지겠대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처음에 누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사례 J)

- 저만한 애들 제가 키워 못 봤으니까 재들

심리를 잘 모르잖아 그래갖고 좀.. (어려웠지). (사례 J)

## 2. 아이로 인한 행복과 기대

자녀가 있는 모든 참여자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각별했는데 이점은 한국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나이가 많이 들어 결혼한 남편이 늦게 본 아이를 매우 반기고, 자연스럽게 아이로 인한 행복이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전반에 활력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도 하고, 결혼초기의 가정갈등도 자녀 덕분에 완화되었다고도 하였다. 또 자녀를 한국사회에서 잘 키우려는 욕심은 한국문화와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애기 되게 이뻐요 근데 무슨 후회?(무슨 후회가 있겠어(사례 C)

- 저는 애기 어린이집 가면 공부 열심히 해요 뭐 이렇기 때문에 말도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애기는 엄마는 외국 사람이니까 학교 가면 챙피하잖아요엄마는 말도 못해 이렇기 때문에 저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사례 I)

## 3. 교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

부모의 교육참여와 사교육의 부담. 연구대상자들의 학령전기 자녀 중 일부는 학원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다문화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이 주로 아내의 몫이 되는 여느 한국가정과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대부분 아이의 유아기 교육이나 학원문제까지 전적으로

아내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한 여성은 한국어 수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남편은 자신보다 더 모르기 때문에’ 아이 교육문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있는 참여자들은 거의 모두 자녀의 교육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의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과하는 한국교육현장의 특성은 종종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학교가 할 일을 부모에게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참여자들 중 두세 명은 자신은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국가에서 교육받았던 반면 한국은 사교육이 발달하고 부모의 교육 참여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환경이라며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학교에서도 일학년도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알아야 되고 알파벳 같은 거 기본기본이래요 우리 000 안 그래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가르쳐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다 가르쳐주고 집에서 숙제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저녁에 와서 엄마 숙제 있어요 내가 프린터해서 사진 빼고 올리고 하는 건 진짜 내가 유치원 다니는 거 같았어요 나한테야 좋지만 뭐 공부도 되지만 그런데 사실은 엄마 아빠 잘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직장 다니면 취직하면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못 챙겨주면 학교에서 너 엄마 뭐 어떻게 어떻게 말이 날까 봐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이런 교육들 못됐어요 (사례 A)

취학연령의 자녀를 둔 몇 여성들은 한국의 사교육 열풍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토로

하였다. 언제 무슨 학원을 보낼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고, 비싼 학원비도 부담스럽다.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상당하지만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 000 교육이랑 한국 교육이랑 너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하면 힘들고 또 부담스럽고 좀 그래요 이번에도 또 영어학원 전문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학원도 어떻게 비싼지 14만 5천원인가? (사례 A)

언어와 학업성취에 대한 우려. 이주여성들은 한국여성들 못지않게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 성취에 관심이 많았다. 여기에는 이주여성이 겪은 편견과 무시, 그리고 문화차이에 대한 반발심도 작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사회에서 당한 무시를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참여자 중 몇은 자신이 한국 엄마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걱정했다. 때문에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언어가 미숙한 참여자는 자신의 발음 때문에 자녀의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을까봐 우려하였다.

- 한국 제가 얘기, 얘기들 원래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엄마 목소리 듣고 엄마랑 똑같이 말하잖아요 제가 000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맞잖아요 얘기 저하고 똑같이 발음이 잘 안 맞을까봐 제가 걱정하는 게 학교 들어가서 한국말이 잘 모르면 애들이 피할까 놀아주지 않으면 집에 와서는 속상하잖아요그러니까 걱정돼요 (사례 D)

한 참여자는 본인의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가정에서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어를 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 4. 따돌림과 차별

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인종차별에서 오는 ‘따돌림’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녀는 친자녀 10명은 대부분 아직 학령전기에 속했으며,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참여자는 두 명으로 각각 한 명씩의 자녀가 초등학교 일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 중 한명은 참여자의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나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온 아동으로, 고려인이기 때문에 외모에서 차이가 없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고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동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했다. 학령기 아동을 둔 두 명 모두 자녀의 교우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학령전기 자녀를 둔 참여자들도 역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아직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 우리 얘기는 학교, 유치원서 적응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잘 놀고 인사도 잘하고 너무 밝아요 기죽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한 가지 짠사람한테 못했지만(내가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짠사람보다 못하지만)만 그래도 얘기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거든요 내가 잘 못했지만 우리 얘기는 기죽으면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줄라고 지금은 기죽은거 우리 엄마 ○○○서 왔는 거 기죽은거 없어요(사례 B)

그러나 자녀에 대한 따돌림과 차별문제는 이주여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큰 걱정거리이다. 참여자들은 아직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주변 이주여성들을 통해 따돌림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엄마가 한국인이 아니라서 자녀가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현재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도 혹시 따돌림 당하거나 기죽는 일이 생길까봐 늘 신경을 쓰게 된다. 설동훈 등(2005)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가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17.6%에 달했으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외모가 달라서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따돌림 문제는 이 여성들의 단순한 기우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이다.

- 외모가 틀린 사람들을 머라 하나면 겁쟁이라고 놀린대 애들이 그래서 학교 가기도 싫고 그런...(일이 있다고 해) (사례 F)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은 집 밖에서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집식구들 사이에서도 어머니가 외국인이라, 혹은 아버지가 장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녀가 등한시되는 것이 섭섭하고, ‘누가 더 잘 되는지 두고 보자’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근데 제가 또 좀 마음 아픈 건 아버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 어떻게 공부 잘

할 수 있느냐 ... 지금 네 살 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는 지금 어떻든지 외국에 대학교 간다고 해도 제가라도 돈 벌어서라도 보낸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교 나온다 어디 유학 간다 이렇게 생각은 안한 거 같애 왜냐면 자기 큰 아들 아들 하난데 그리고 딸 둘인데그 아들 큰손자가 한국은 원래 그렇잖아요 장손은 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개보다 제 아들 잘 키울꺼다 자신 있게 엄마 마음 다 그렇잖아요 그땐 좀 마음 아프게 그렇게 나왔어. 왜냐하면 또 어머님께서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수록 제가 애 교육 잘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례 F)

### 한국사회의 이주여성 수용도

#### 1.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약 절반 가까이는 한국 사람들이 이주여성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한국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 어떤 한국인은 한국보다 조금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잘난 척해서 속상했다고 하였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국인에게 무시당하거나 괴롭힘당한 적이 없더라도 주변의 이야기나 텔레비전 보도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람들의 편견 등으로 인해 한국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처음에 저보고 한국 사람인줄 알았는데 얘기하다보면 제가 말투 땀에 한국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해도 한국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마음 못 쉽게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가가기도 싫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사례 F)

특히 통역 등의 활동을 통해 이주여성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몇 참여자는 일부 한국 가정에서 이주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한국 사람들이 이주여성들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주여성들이 다른 문화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문화를 강요하여 갈등이 일어남을 지적하며,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한국남자들은 ○○○사람 많이 때리고 있어요 ○○○사람만 아니고 외국 사람이 다 그래요 결혼하면 짧게 생각했잖아요 생각이 안 맞아요 내가 돈 줬어 너 사왔어 그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일시키고 내가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한국사람 아니지만 사람인데 우리 인형 아니잖아요 어떻게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데 ○○○사람이 왔을 때 도망간다고 나쁜 사람들 그런데 왜 도망가라고 이유 있었죠 당연하죠 남편이 잘해주면 첫째로 남편이 잘해주면 사랑주면 왜 나가요 막말로 왜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행복 없으면 맨날 때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나가서 살아야지 어떡해 한국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사람 그거만 생각하고 남자도 내가 너 돈 줘서 저한테 데려오면 너 나한테 일 해주라고 나한테 잘해주라고 탁탁 밀어.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아니예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행복주고 사랑해주면 잘 살 수 있어요(사례 D)

한국인들의 이주여성에 대한 갖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은 이들을 힘들게 한다. 러시아에서 온 한 참여자는 ‘까만 머리 러시아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 있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시어머니에게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일하는’ 나라 사람으로 인식되어 일을 강요받기도 했다. 이런 경험이 이주여성에게는 상당한 상처로 남는 것으로 보인다.

## 2. 한국의 이주여성 관련법 실태

참여자 중 한들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한국생활이나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법적인 문제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이주여성에 관한 현행 법안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주여성들이 처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실태를 알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한 결혼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였으며, 통역아르바이트를 통해 이혼문제를 겪게 된 이주여성을 만났다는 한 참여자는 한국법이 ‘남자 편’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주여성들이 불리한 입장이라며 억울함과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지금 결혼 전문업체로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돈 얼마씩 그거 많이 주 대우전략 고 들어오는 거 같은데 시어머니들이 그 생각하면 돈 주고 사람 사온다고 생각하는 거 이주여성들이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대응 전략은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범

소개해준 회사가 다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더니 그거 불법 아니래요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 불법 아니래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라에서 조금만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마음이 좀 불안 하죠 (사례 F)

- 한국이 법에서, 맨날이 남자밖에 모르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가서 (통역)했어요 했는데 그 남자 바람 피웠는데 마누라한테 바람피워서 미안한데 잘못했는데 자기애기, 자기 호적에 올렸다고 얘기 데려간다고 바람피운 저 여자한테 그러면 마누라가 엄마가 뭐 해요? 그건 너무 하지 않아요? 한국 법 너무 해요 진짜 그거. 자기애기 호적에 넣었다고 얘기 데려갈려고 그럼 엄마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그거 이해가 안가요 (사례 D)

이주여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은 시급하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 1인은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한국에 남아있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결혼한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경우라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음을 입증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주화되었고, 그 안에 다양한 구체적 전략들을 담고 있었다.

**적극적 대처**

이주여성들은 갈등상황에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관찰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도 하였다. 일부는 문화나 생각 차이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자신의 의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이러면 당신과 살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시가족과 갈등이 있을 시에도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시가족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시가족과의 갈등에서 직접적으로 대처를 하기 어려울 경우 좀 더 쉬운 상대인 남편에게 대신 불만사항을 쏟아 부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때로 언어적인 문제로 남편이나 시가족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던지 자국의 대사관에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 내가 애기아빠 앉히구서 내가 얘기해요. 나는 자기 땀에 내가 힘들어서 속상한대. 왜 나 안 믿으냐구 말 해 힘 들으면 무슨 일 할 때마다 내한테 상의하구선 일처리 하며는 나는 덜 속상한대 왜 혼자 다 알아서 처리했냐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구. (사례 B)

- (남편이 ○○○가서 살기 싫다고 하면) 싸

워 아니예요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돈 있으면 ○○○ 가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여기에서 살아. 저는 애기 데려가서 살아(당신은 여기에서 살아. 나는 애기 데리고 가서 살 꺼야, 이렇게(말해요). (사례 1)

- (시댁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남편한테 나중에 싸워 우리 남편한테 야 다다 다다다 (그러면 남편이) 알았어.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 여기 오지 말라고 (사례 E)

이러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는 단지 남편과 가족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인과의 갈등상황에서도 이주여성들의 대처방안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당하는 무시와 설움에 대해 더 당당하게 맞서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자신에 대한 대우가 부당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우리는 ○○○서 오기 때문에 말 잘 못하니깐 어떤 한국 사람은 우리 뭐 깔보고 그런 거 많더라구 이상한 말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많이 좀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한국 사람한테. 나는 진짜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나는 뭐가 모자라서 한국 사람한테 치이구 사느냐구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내가 나중에 통역하든지 뭐하든지 한국사람 앞에서 내가 한번 보여줄라고내가 ○○○말도 잘하지만 앞으로 한국말도 더 잘 하구선 내 자존심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안 치이구선 내가 한번 살아 볼라구요(사례 B)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대상

자들의 경우 스스로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참여자는 “마음에 담아두면 내가 병난다, 얘기하고 나면 뱃속 편안하다”며 스트레스가 덜해진다고 하였다. 특히 남편에게 적극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남편과 밀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남편이 여성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주지 않을 경우 이런 대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극적 대처

이주여성들의 대처방안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모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시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소극적이 된다든지, 일부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일부에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대처양식에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참거나, 울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방식의 영향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적극적 대처가 주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소극적 대처는 주위의 지원이 없을 때 주로 나타난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외롭게 떠 있는 점과 같은 존재일 경우, 적극적으로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참여자의 경우 일관적으로 소극적 대처양식이 뚜렷했는데, 남편과 시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가족은 물론 주위 이웃으로부터도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문화에 전적으로 동화해 가는 특성을 보이는 참여자가 문화적 갈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앞으로도 꼭 한국에 살아야 하는데 한국 문화라면 구태여 나쁘게 생각할 것 없이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동화하려는 의지에 의해 소극적 대처가 나타날 경우에는 한국생활에 대한 별다른 불만은 없었으나, 주변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했던 참여자는 한국생활이 몹시 불행했다고 응답하였다.

- 한국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없어요 다 만족 하니까. 만족 안할 때 양보하고 아 또 나를 이해 못할 때 그냥 참고 나중에 다 알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이해가 안되는 거 내가 이 나라 문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 하니까 (사례 A)

- (부당한 일을 시키더라도) 다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라고 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례 H)

### 문화적응과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을 Berry(1990)의 이론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은 대부분 동화와 통합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은 동화로서, 참여자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동화 유형이거나 동화와 통합이 섞여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문화를 거부하는 분리나 주변화 유형은 드물었는데 이는 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해왔으며, 동향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고, 한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문화로의 동화

### 1. 자발적 동화

이주여성들은 대개 한국문화를 수용함으로써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동화 양상을 보였다. 양국 간의 문화차이를 감지하지만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거나, 한국방식이 본국방식보다 더 좋아서 한국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젖어들기도 하였는데 특히 일상적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졌다. 현재의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본국과는 차츰 멀어지게 된다. 이주여성들의 한국행에 경제적 동기가 컸다 하더라도 기대보다 열악한 경제적 위치에 실망하기보다 현재의 가정형편에 알맞게 살림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정에 경제적 원조를 하더라도 ‘우리가족부터 한국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에 따라 금액을 줄이거나 끊었으며, 친정식구들을 방문하는 것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제하기도 하였다.

- 한번 〇〇〇 갔다 오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얼마가 들어오는데.. 맨날가면(안되지) 우리도 먹어야지. 맨날 〇〇〇가자 〇〇〇가자 그러면 나중에 애기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한국에서 살면(서) 〇〇〇가서 뭐해요 똑같아. 그냥 놀러 가면 놀러가도 싫어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사니까 맨날 사는 데 〇〇〇가면은 심심해요 저도 심심하고 싫어요 한국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사례 D)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자라야 하는 자녀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국적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 참여자는 한국의 사교육 열풍에 그다지 찬성하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엄마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엄마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국적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완벽한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굳이 모국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임을 가능한 한 숨기려하는 이러한 경향은 사회정체감 이론에서 밝힌 집단 이탈 반응에 속하는 것으로 이주여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 글썄 여기 보편은 한국 엄마들이 학원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원 별로 안 다녀 아예 안 다니고 학교에서 다 해주고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은 이 많은 학원 보내느냐 마느냐 생각해요 그게 제일 좀 걱정이예요 (사례 E)

- 너 엄마 〇〇〇사람이잖아. 같이 안 놀아. 너 엄마 거지잖아. 안 놀아. 그런 거 있어(있을지도 몰라. 우리 신랑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래서) 이름 바꿨잖아요(사례 C)

몇몇 이주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진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한국의 문화습

관이 모국과 다르다 해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더라도 한국식으로 맞추려고 애썼는데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식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남편이 모국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 해도 불만을 가지거나 남편에게 모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하기보다 자신이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것에 더 주력했다. 때때로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모국의 사고 방식을 적용하며 절충안을 찾기도 하고 모국 음식을 싫어하는 남편에게 “왜 ○○○ 음식도 안 먹으면서 ○○○ 사람과 결혼했느냐”며 항의해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국식 문화습관과 사고방식에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 그런 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제 느낌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생각에 그냥 이 나라 그 나라 문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제가 많이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례 A)

- 저는 (제사) 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남편은 큰애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제사 싫다고) 말 못해요 남편은(남편에게는) 말해요 (사례 1)

이주여성들은 결혼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한국국적으로 변경할지 모국의 국적을 유지할지의 결정은 본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어떠한지 보다 어느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따른 이해관계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거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마음가짐에 의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대해 그러저럭 만족하고 있는 듯한 ‘어쩔 수 없는 만족’의 형태로 보여졌다. 동화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일부 여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보하고 참기 때문에 만족한다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불편함은 있어도 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거나, 누가 봐도 완벽한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살다보니 익숙해져서 만족한다거나 현실에 만족해야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다.

## 2. 동화에 대한 압력

한 사례는 일방적으로 모국의 문화가 거부당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어쩔 수 없이 동화되어야 했던 경우였다. 이 사례는 시가족들이 모국의 문화를 거부하고 한국식 문화를 강요하였는데 문화차이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가 한국식 생활습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남편 그리고 시가족들과의 불화로 한국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다. 육체적인 폭행 외에도 무조건적으로 시집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강요당하고 자신의 생활습관은 일방적으로 무시당했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 ○○○ 음식 안 해요 근데 내가 음식을 했는데 식구들 먹지 않아요 그래 내가 하면

싫어해요 했는데 사람 안 먹으면 먹기 싫으  
죠 시엄마 시아버지 아무도 안 먹었고 남편  
한 개씩 먹어 봐라고 먹어보라고 했는데 근데  
먹지 않았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게 음식 만  
들었는데 먹지 않았어요 싫어해요.. (나는 한  
국음식이 안 맞아도 그냥 먹어요 매워도 못  
먹었지만 그냥 먹어요 억지로 먹어요 많이  
안 먹고 조금씩 먹어요(사례 H)

### 두 문화의 통합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양식이 동화 쪽으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동화적 특성만 나  
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화차이를 경험할 때 남편에게 자  
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상황에 따라서 한국식 문화와 모국식 문화를  
적절히 혼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한국식으로 남편  
에게 존댓말을 해서 남편 체면을 세워주고,  
집에 와서는 자신의 평등주의 소신에 따라 남  
편에게 반말을 하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코  
드 전환을 해가며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 한국음식 되게 많아. 맛있는 거 많아. 왜  
○○○음식 먹어? 근데 (남편이랑) 싸웠어. 내  
가 당신 ○○○음식 안 먹어, 근데 왜 외국인  
왜 ○○○사람(과) 결혼 하나? 이렇게 문제 있  
어.(사례 C)

- 회사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안 해요 '왜 나  
왜 불러' 사람 있으면 자기가 나이 많으니까  
챙피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 있으면 '네 알았어요' 그러는데 집에선  
'알았어'(하고 대답하죠). (사례 D)

자녀가 엄마의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자긍  
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자녀  
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  
우도 있다. 그 이유가 엄마의 문화를 자녀에  
게 알려주고 이중문화에 관한 정체성을 심어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중 언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자녀의 향후 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필리핀 같이  
영어권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 자녀에  
게 모국어보다는 '더 높은 언어적 가치를 지  
닌'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였다.

- 여름방학 때는 꼭 ○○○에 보내고서 왜  
냐하면 애기 미래도 영어 기본적으로 알고 한  
국어도 알고 ○○○어도 전문적으로 알면 나  
중에 직업 가져도 좀 그렇죠 쉬운 거 같아서  
그쪽으로 밀어주고 싶어요(사례 F)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통합적 기제를 가지  
고 있는 여성이 동화적 기제를 보이는 여성과  
반드시 구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동화  
한 사람과 통합한 사람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  
고, 한 사람에게서 어떤 경우에는 동화적 특  
성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통합적 특성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  
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상황요인과 대처전략은 유기적으로 상  
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들은  
또 각각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질적 분  
석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관계로서 후속연  
구에서 양적 분석을 통한 모형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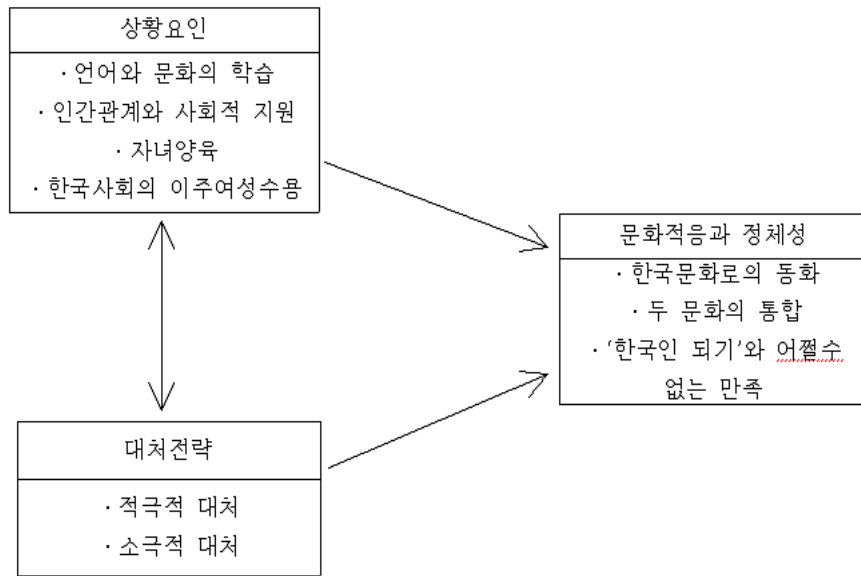


그림 1.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적응 양상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면접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한국생활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들이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방안과 문화적응양상을 분석하고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질적 분석의 결과,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관련요인은 상황요인, 스트레스 및 갈등에 대처하는 전략, 그리고 문화적응과 정체성 요인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각각의 하위범주들이 발견되었다. 상황요인과 대처전략은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보이고 이 둘이 각각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한 상황요인들로는 언어와 문화의 습득,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원, 자녀양육,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 수용도가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도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이주여성의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특히 이주초기에 여성들의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초기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어려움이 교육기관이 없어서라기보다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여 5곳의 결혼이민자 지원단체가 운영 중이며, 한글과 문화 교육 외에도 가족상담, 법률지원, 부부교육, 산모서비스와 같은 한국생활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에 대한 홍보나 국제 결혼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스로 지원 단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친구나 주변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기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언어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언어 교육의 대상이 이주여성에게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로 이주한 후에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은 오직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었고, 남편이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문제 다음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어려워하는 점은 자녀 양육이었다. 이주여성들 대부분은 초혼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멀리 있는 친정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다. 일부는 시가족들에게 산후조리와 초기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시가족들이 없거나 사이가 나쁠 경우에는 여성 본인과 남편이 모든 일을 짊어져야 하는데, 대개 남편이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또한 양육경험이 없는데다 어떤 경우에는 동생뻘인 전처 자녀들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남다른 고충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의 교육문제 역시 상당히 버거운 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국의 교육정책과 경쟁적 교육풍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남다른 고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사교육 열풍과 그에 따르는 사교육비 지출은 모국에서는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방침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가정경제에 상당

한 타격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자 하는 소망이 강했기 때문에 자녀의 성취에 관심이 많았고 교육을 위해 최대한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드러내었는데, 일부 사례에서 한국인인 자녀에 대한 애착은 한국사회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으로 이끌었다.

이주여성들은 자녀가 또래집단에서 ‘따들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은 모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문화도 열등할 것으로 여기는 편견을 경험하였고, 자녀들도 이러한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이주여성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경제문제도 이주여성들의 고충거리 중 하나였다. 이주여성의 가정에서 수입원은 남편 혼자인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례도 흔히 있다. 만일 남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사고가 생긴다면 유일한 수입원을 잃고 가정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만, 이주여성들은 그에 대비할만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어린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모국에서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한국에서는 저소득 생산직 외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를 할 줄 아는 필리핀계 여성들은 영어강사로 취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은 이주 전 학력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한 참여자의 경우 본국에서 교사였으며 대학

원까지 졸업했지만 과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학식과 경력을 쌓았더라도 한국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이는 본인들에게도 좌절감을 주고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적응에 내우 중요한 요인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만족감이 한국생활 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낮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편견과 어려움은 종종 여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웬만한 어려움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반면에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경우 한국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 참여자는 한국에 와서 남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결국 혼인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주목할 점은 결혼과정에서 이 여성이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되었으며 혼인에 대한 주체적인 의사를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결혼적 행태와 가정폭력은 이주여성에게 드물지 않게 일어남을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글렌, 2005; 김상임, 2004; 마리안나, 2005; 윤정숙, 임유경, 2004; 이인경, 2005; 한국염, 2003).

남편 외에도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 특히 이주여성 지원단체들은 이주여성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여성들은 지금까지 남편과 가까운 시가족과 이웃으로 인간관계가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이주여성들과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덕분에 이주여성들은 언어가 통하는 자국 친구를 만나 외로움을 덜고 이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생활을 좀더 활기차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굳이 한국인들과 사귀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인들과의 접촉 기회가 더 적어지기도 한다. 일부 이주여성들의 경우 인간관계가 오직 관련기관을 통해 사귀게 된 이주여성들로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종교나 이웃모임이 없으면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고, 언어소통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주여성 지원단체에서 한국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선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한국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이들에게 불리한 관련법 실태가 이들의 한국생활만족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결혼중매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 국제결혼의 상업적 성격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일부 사기결혼의 행태를 창출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였다. 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결혼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국적취득 과정에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이를 두고 남편이 아내를 협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한 참여자는 남편의 폭행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한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주여성이 이를 입증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부부관계에서도 여성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권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는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중시킨다.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요인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책을 찾기도 하였고, 때로는 어려움을 그냥 참으며, 상황이 바뀌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주여성들의 문제 대처전략은 상황요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황특성에 따라 중요한 대처특성이 다르다는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이나 함께 거주하는 시가족들이 여성에게 호의적이고 언어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보이는 반면, 사회적 지지가 미약하고 주변으로부터 단절된 경우, 더 소극적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더 높은 한국생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이주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한국생활만족은 일반적으로 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언론의 보도가 사회적 약자로서의 이들의 어려움과 부적응에 집중하여, 이들이 차별과 고립 속에서 불행하

게 산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윤형숙(2005b)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단일한 피해자·정책대상자 집단으로 재현하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진 이주자이며,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이주지에서의 삶의 조건과 내용, 가족관계와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행위자 주체(agent-subject)라는 사실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편, 시가족, 주변 한국인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갈등상황과 마주쳐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으며, 가정 안에서 확고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한국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는 기존의 태도들이 반드시 적절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상황요인과 대처전략은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과 정체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문화적응유형은 대부분 동화와 통합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동화로서, 참여자들은 전적으로 동화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동화와 통합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문화를 거부하는 분리나 주변화 유형은 드물었는데 이는 이주여성들이 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해왔으며, 연대나 모임을 통해 자신들만의 하위집단이나 확고한 지지기반을 만들기 어렵고, 한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자녀를 키워야하는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화 유형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하게 되는데 주로 음식이나 예절과 같은 생활방

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동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생활양식이 살다보면 '익숙해지는' 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화양상을 강하게 나타내는 여성들은 특히 자녀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동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들은 자녀에게 이중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 자녀가 자신의 모국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자녀가 한국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스스로도 완벽한 한국인이 되기를 추구하는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사회가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생활터전이 한국이니까 맞추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개념으로 다문화적 정체성의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동화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동화와 비자발적인 동화로 다시 구분된다. 자발적 동화는 처음부터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 경우로, 가족의 직접적 압력이나 강요는 별로 없었다. 이는 사회정체감이론(Tajfel & Turner, 1986)의 시각에서 보면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을 떠나 높은 지위의 집단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이동'에 해당한다. 한국사회가 이주여성들의 모국을 존중해 주지 않고 차별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국인으로 살기로 하는 것이다. 이주여성이 한국식 생활문화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가족의 암묵적 기대나 간접적 압력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의지가 더 강하다. 비자발적인 동화의 경우에는 남편과 시가족 등이 한국문화에 따라서 살도록 노골적으로 이주여성에게 강요를 하였다. 이 여성은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차

단당하고 모국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당하였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동화해서 살 수밖에 없었으나, 매우 불행해 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어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였다.

생활방식과 달리 사고방식은 쉽게 동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족환경은 모계중심적인 사회에서 온 이주여성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적당히 한국식 문화와 모국식 문화를 섞는 통합적 양상을 통해 모국의 사고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한국식으로 남편에게 존댓말을 해서 남편 체면을 세워주고, 집에 와서는 자신의 평등주의 소신에 따라 남편에게 반말을 하는 앞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모국의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가끔씩 유연하게 행동방식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말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부부가 평등하게 사는 모국의 문화가 더 좋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것 때문에 모국이 여러 면에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속으로라도 '이건 우리 문화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아존중감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조기교육, 사교육 열풍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기초부터 잘 가르쳐준다'며 한국교육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정체감이론에서 보면 비교의 차원을 변경하여 내집단이 우월한 특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창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건강한 비판들은 어떻게 잘 수용하느냐에 따라 한국문화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하면서 한국문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통합 유형은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었다. 남편이나 시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한국 음식을 해먹지만 모국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국 음식을 해먹으며 즐기는 사례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며, 그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통합적 양상을 보여준다.

외부상황이 자신에게 좀 더 호의적일 때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렇게 동화와 통합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동화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여성에 비해 더 활기차게 한국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원래문화(original culture)와 주류문화(host culture)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때, 자신의 문화와 주류문화를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적응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들(Bennett & Bennett, 2004; Oetting & Beauvias, 1991; Gil, Vega & Dimas, 1994)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심층 인터뷰 자료의 질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해낸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들이 단순한 사회적 약자,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적응 전략을 구사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가는 존재라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수가 제한적이고 중소도시 주변에 거주하며 지원단체와 연결되어있는 사람들로 구

성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이주여성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소외된 지역에 고립되어 생활하는 이주여성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와 문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글렌 (2003).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과 가정폭력.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6월4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민정 (2003).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5월30일. 광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59-193.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움: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17-48. 이주여성인권센터.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마리안나 (2003). 사설알선업체에 의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6월4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신경림 외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왕한석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문제와 해결방안. 새국어생활 16(1), 33-50. 국립국어원.
-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윤정숙, 임유경 (2004). 성별화된 이주방식으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11월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위당관
- 윤희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 321-349). 서울: 한울.
- 윤희숙 (2005a).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 299-339. 제주: 학연문화사.
- 윤희숙 (2005b). 지구화, 여성이주, 한국사회의 성적·인종적 위계 만들기.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6월 21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 이진숙 (2005). 여성 이주의 현황과 쟁점: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중심으로. 사회운동, 57, 98-108. 사회진보연대.
- 이인경 (2005). 이주여성의 인권 : 어울림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발전포럼 96, 52-60. 부산발전연구원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회지, 28, 73-106.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6). 인구통계조사. 2006, 10, 16 인출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98-243.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움: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1-16. 이주여성인권센터.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소스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대처양식의 유연성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 Bennett, J. M., & Bennett, M. J. (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D. Landis, J. M. Bennett, & M. J. Bennet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3rd ed., (pp. 147-165). London: Sage.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pp. 232-253).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Ellemers, N., Spears, R., & Van Knippenberg, A. (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status-enhancement strategie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66-778
- Hogg, M. A., & Abrams, D. (1990). Social Identification: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Pearlin, L. I., & Schooler, C.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21.
- Tajfel, H. &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Austin and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 1 차원고접수 : 2007. 8. 19.  
심사통과접수 : 2007. 9. 27.  
최종원고접수 : 2007. 11. 24.

## **Acculturation and Identity of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Joo-Hee Park**

**Jean-Kyung Chung**

Chung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ulturation and identity and the coping strategies of the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done in order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relevant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Situational factors and coping strategies were found to be the two major categories influencing acculturation and identity. Sub-categories of the situational factors were found to be the acquisition of language and culture,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child rearing, and the acceptance by the Korean society. The women sometimes showed active problem-solving behaviors such as building up their abilities or taking assertive attitudes, and sometimes showed passive reactions such as enduring the difficulties or waiting for the situation to change. It was found that, when the situation was favorable, they tend to use more act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and achieved higher life satisfaction. The women's acculturation types were found to be mostly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Those who freely adopt both typ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showed higher adjustment. The study revealed that these women are active builders of their new life using various strategies in the face of many difficulties, in contrast to the stereotype that they are maladjusted and isolated victims.

*Key words : immigrant wives, international marriage, acculturation, identity*